

“더이상 들어설곳 없다”

제2도서관 신축위해 강의동 폐쇄 예정

공간부족 우려...대책마련 시급

제2도서관 공사가 구체화되면서 공간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는 12월, 강의동 자리에 제2도서관 건축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12개의 강의실·실습실이 줄어들게 된다.

본교는 서울시내 중심가이자 남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남산 제모습 찾기'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고 있다. 새로 건물을 짓거나 고철 때 도시계획법에 따라 고도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간 학교에서는 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7년 학술문화관을, 99년에는 정보문화관과 상록관을, 급년에는 해학별관을 신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부족문제는 여전히 교수, 직원, 학생 모두의 관심사이다.

학사지원실(실장=하정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의실 활용률이 99년에는 58%, 올해는 69%인데 반해 2001년에는 교양강의실이 70%, 전공강의실이 94%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렇게 공간 부족이 심화되는 것은 비단 강의동 철거 뿐만 아니라 △야간 학과의 주간 전환 △복수전공·전과 학생 증가 등도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년 정년퇴임 교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신규 교수를 채용하면서 교수 연구실도 많이 부족할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팀장=이천중)의 김계현 과장은 “작은 공간일지라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충분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전했다.

제2도서관을 짓고 나면 본교 건물은 여유가 전혀 없게 된다. 따라서 더이상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학교측은 강의실 활용률이 70%를 초과할 경우 △계절학기 확대 실시 △가상강좌 확대 실시 등 제도적인 보완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전일제 수업이나 △트roy강의 등 강의실 활용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본교는 공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97년 일산에 교지를 매입하고 제3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제3캠퍼스는 개교 1백주년이 되는 2006년까지 약 8백여원을 투자하여 설립할 예정이다.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책을 수립해 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선 기자

last-greetings@hanmail.net



“일쭉”... 단과대 풍물패 연합은 개강을 맞이하여 지난 1일 동악인을 위한 ‘개강굿’을 학내 곳곳에서 벌였다. 흥겨운 우리가락에 주변을 지나던 학생들도 덩달아 어깨를 들썩이며 신명난 발걸음으로 동악을 누빈다. 김은선 기자 last-greetings@hanmail.net

지면안내

제2회 퀴어영화제 7면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졌던 억압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조명한다.

의학분업 전공의들의 움직임 4면

한국사회에 존재한 인권침해 5면

월경 페스티벌 6면



한가족의 만남

정성본 (불교문화대 불교학)

이번 광복절은 지난 6.25 전쟁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이산가족이 50년만에 상봉하는 감격의 눈물로 한반도를 온통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하였다. TV를 통해 감격적인 만남을 지켜보는 우리들의 가슴도 그들과 똑같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서 감동의 열풍 속에서 9월4일을 보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50여년 동안 보고싶은 가족을 만나지 못한 피맺힌 한을 푸는 감격스러운 자리였다. 특히 한인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이기에 “피는 볼보다 진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혈연의 정은 피로 맺은 인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으로 혈통을 상봉하는 한인족은 세계 그 어느 민족보다도 가족에 대한 정이 깊고 따뜻하다. 한 가족은 한 집안에서 각자 제 자리에서 살아야 서로 편안하고 안심하며 살 수 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사람이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누구 한 사람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삼강오륜의 윤리정신이 철저한 한인족은 부모에 대한 불효는 즉 죄인과 다름없다.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올리는 것도 혈연으로 맺어진 효도의 실천이며 도리인 것이다.

조상과 부모에 효도하지 못한 불효의 한이 풀어지고, 보고싶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마음이 편안하고 병이 없어진다. 우리민족이 지니고 있는 한풀이는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독특한 정서이다.

우고름을 풀며 옷을 벗고, 가슴을 풀어헤치는 모습은 마음에 못치고 피맺힌 응어리를 풀기 위한 한풀이의 행위인 것이다. 이제부터 모든 가족이 분단 이전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하나가 되고, 한집안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평온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한인족, 아니 세계 인류 모두가 각자 피맺힌 한이 모두 풀어지고 없어져, 마음에 근심 걱정의 아픔이 없고 평안하게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보살도의 불국토가 이루어지도록 불교인들은 자비와 손길로 더욱 힘써 인도해야 한다.

석좌 · 객원교수 인사

전 국립미술관장 임영방 교수 초빙

본교 인사관리팀(팀장=오광진)은 지난 1일자로 석좌·객원교수를 임명했다. 석좌교수는 전 서울대 교수와 국립미술관장을 지낸 임영방 교수 외 4명, 객원교수는 법과대학 소속의 장명근

교수 외 12명이다. 한편, KBS 야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일성씨가 경주 캠프 사회체육학과 겸임교수로 초빙돼 매주 월요일 '평생체육' 강좌를 강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카페 설치

해화관에 자유로운 휴식공간 마련

인터넷 검색과 채팅을 하며 사람들과 답소도 즐길수 있는 '인터넷 카페(가정)'가 해화관 2층에 문을 연다.

인터넷 카페는 한국통신프리텔에서 컴퓨터를 제공하고 2Mbps(E1급) 인터넷 전용선을 설치하는 등 시설에서 인터넷이 가능할 때까지 무료로 지원받는다.

인터넷 전용선과 랜카드 컴퓨터를 항상 갖추고 있어 인터넷 접속에 용이하다. 이는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꾸며진 휴식공간이 정보공간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카페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학) 정보관리실장은 “만남의 장소에 그쳤던 휴식공간이 인터넷 접속을 원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실습실과 멀티미디어실에 비해 좀더 자유로운 공간이 이용이 기대된다.

한편 이외에도, 시설관리팀(팀장=이천중)은 정보문화관 옥상에 대나무와 느티나무를 심고 등받이 의자와 야외탁자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분위기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홈페이지 개편 웹메일서비스 실시

본교 홈페이지가 오늘(4일) 두번째 새단장을 했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버룩시각 △본실물 센터 △나의 주장 △동아리 게시판 등 대학생활정보와 여론 부분들을 주내용으로 하고 △동국 소비자 상담실 △알림방 등은 수시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한편, 홈페이지 개편으로 중단되었던 본교 웹메일 서비스가 실시된다.

새로운 웹메일 서비스는 기존 메일 사용자들도 신규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ID@dongguk.edu를 기본으로 △ID@cakra.dongguk.ac.kr △ID@dgu.ac.kr △ID@dgu.edu 등 4개의 도메인을 전부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정보관리실장은 “다양한 메일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며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실 개관

최첨단 기자재 보유 ... 효율적 학습 기대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실이 문을 열었다.

지난달 28일 개관한 어학실습 멀티미디어 시청각 교육실은 동국관 2층에 위치한 언어연구교육원을 해화관 1층으로 옮기면서 함께 있던 어학실습실을 개선해 최첨단 기자재 시설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TV시설만을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시청각 교육시설을 탈피해 동영상 외국어 교육 및 자율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PC시설 70석과 Audio-Video 전용 시설 80석을 갖춘 쾌적한 교육여

건으로 개선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외국어 교육은 물론 CNN, NHK 등 위성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많은 교육자료가 데이터로 구축되어 있어 비디오·오디오 뿐 아니라 CD·LD의 교육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외국어 학습의 질이 높아지게 됐다.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은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에서 3000원에 발급하는 바코드를 학생증에 부착하면 1년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청각실의 출입증이 있는 학생의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출입증을 지참하면 바코드를 부착해 준다.

이와 관련해 언어연구교육원의 한 관계자는 “첨단멀티미디어 실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외국어 능력을 중요시하는 추세이니 만큼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고수동정

▲김홍일(건축공학)=오늘(4일)부터 오는 9일까지 팔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건축사 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학생대표단 인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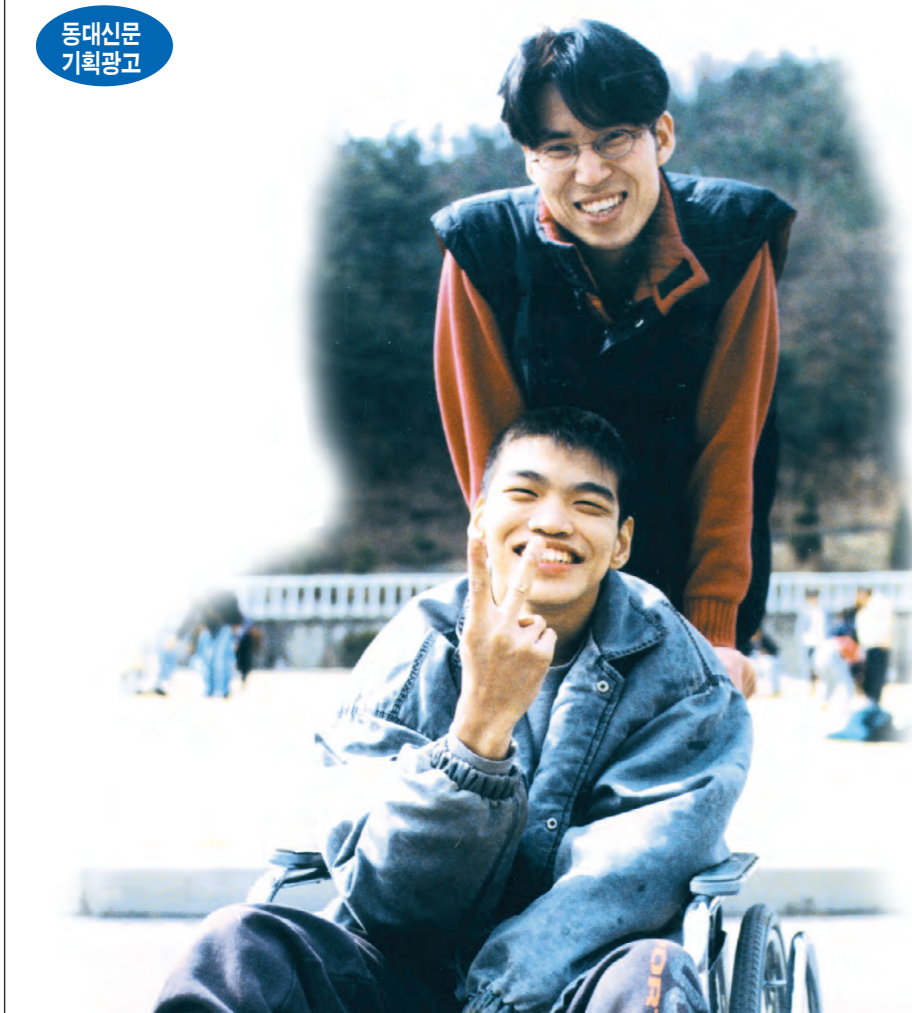
▲김현정(반도체과학)=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제11차 MBE 국제학술대회 참가

저서 · 번역 연구비 지급 4백만원씩 교원 9명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는 지난달 29일 교원들의 저술 및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저서·번역 연구비를 9명의 교원들에게 각 4백만원씩 지급했다.

저서 부문에서는 △한태식(선

학) △구승희(윤리문화학) △염준근(통계학) △김선학(국어국문학) △송유진(정보산업학) 교수, 번역 부문에서는 △박명관(영어영문학) △한용환(국어교육학) △정태섭(역사교육학) △구병수(한의학) 교수가 선정됐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더불어 사는 지혜

봉사활동은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사사로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좀더 따스하게, 좀더 푸근하게 만드는 동력을 자신의 마음 속에 품는 것이다.

국어교육과 4학년 한창호

봉사활동을 마치고 난 후 감동의 물결이 가슴을 꽉 채웠으며 커오면서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봤다. 인간이란 동물이 자연과 어떻게 동화해야 하는가를 배워지게 느꼈다.

정보관리학과 4학년 유동선

자원봉사를 하면 첫째, 경험의 폭을 넓힐수 있고 둘째,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며 넷째, 봉사활동 터전에서 실천함으로써 배운 것에 대한 응용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

화학공학과 4학년 차수정

발전기금 ARS 7000-119

가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

2000학년도 가을학기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전교생(재학생)
- 신청서 접수기간: 2000. 9. 4(월)~9. 8(금)
- 봉사활동 기간: 2000. 9. 25(월)~11. 31(금)
- 학점인정: 가을학기중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학점 인정시기: 2000학년도 2학기)

- *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접수처: 동국침사팀봉사단 (본관 3층 학생복지실내 ☎2260-3049)
- 봉사활동대상단체: 약 50여개 기관 (봉사활동 내용: 300여개 프로그램)
- 예비교육: 2000. 9. 23(토) 08:20~16:00 (집결장소: 본관 중강당 8시20분까지)
- * 예비교육 불참자는 학점인정 불가
- * 봉사활동에 따른 안내책자는 봉사단 및 각 단과대학 교학과에 비치되어 있음
-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강정정 3과목으로 제한 실시

학생들 숙지 미숙 · 홍보 부족 ... 혼란 야기

지난 8월 30일부터 3일간 실시된 수강정정에서 '수강의 자율권 보 장'과 일부 교양과목에 편중된 수강신청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강 정정은 이전과는 달리 정정할 수 있는 과목을 3과목으로 제한하였다. 복학생과 편입생 외에 수강 정정이 불가피한 학생들은 정정 기간을 활용하고, 그 외 일반 학생들은 개강 초 수업준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수강신청 시 이미 학생들에게 알려진 사안이 었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강 신청 기간 동안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정정 기간에 몰려, 수강 정정 기간 동안 혼란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정원이 초과된 과목을 수강하고 싶을 때 담당교수의 사인 이 있으면 교학사에서 정정이 가능

하였으나, 분반시 강의실 부족 등의 문제로 이번 학기부터는 이러한 방법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 학생은 "광고학 일문을 듣고 싶어 교수님의 사인을 받고 교학사에 갔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수강 정정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랐고"고 말했다. 또다른 학생은 "최소한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각 단과대 교학과는 새로 조정된 수강 정정 제도에 대해 묻는 학생들로 붐볐으며, 수강 정정에 대한 항의 전화도 있었다. 이과대 교학과 담당직원은 "바뀐 제도가 처음이며, 많은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웠을 수 있으나,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지난 1일 컴퓨터 실습실에서 한 학생이 수강정정하고 있다. 조정했다"고 말했다. 학사지원실(실장=하정운) 박군 서 과장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공보다 교양 과목으로 치우쳐 신청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원을 늘릴 수 없었다"며 강의실과 강사부족으로 분반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양해를 구했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회전무대

불변의 법칙

○...개강이후 학생들은 강의계획서 때문에 많이 많다는데. 이유인즉, 강의계획서가 지난 학기와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서라고.

이는 학생들의 알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수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생들이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채춤

○...매주 학림관 소강당에서는 부채춤 공연대회가 열린다는데. 알아보니, 소강당에 에어컨이 없어 영화를 보러 모인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채질을 한다고.

부채춤에 너무 열중한 학생들에게 영화관람을 뒀전으로 미뤄지고 교육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내년 여름에도 동국교예단 활동 해야하냐?"

동국나이아기라

○...비만이면 후문에서는 인공폭포가 개장된다는데. 빗물이 거세게 흘러내려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이는 급한 경사로 인해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배수 시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대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인공폭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단, 우천시 예만 개장?!"

모교수의 비명

○...문화관의 한 강의실에서는 전기고문(?)이 있었다는데. 한 교수가 원활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이크 선을 연결하던 중 감전사고를 당했다고.

이는 한주간 내리던 비로 인한 사고를 예기치 못하고 교내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 소홀했던 탓이었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교는 교수 감전사고에 대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졸준위 대학생 수기공모

2000학년도 하반기 총운위 개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병남·무역4, 이하 졸준위)는 본교 3, 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CD에 실릴 대학생 수기를 공모한다.

수기는 2페이지 원고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10월 5일까지 학생회 사무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http://home.dongguk.ac.kr/~graduation>에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개별통보하며 시상

은 당선작 1편과 가작 2편을 뽑아 오는 10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졸준위는 오는 21일 오후 5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2000학년도 하반기 총운위원회(이하 총운위)를 연다. 이번 총운위에서는 각 학과(전공)의 4학년 과대표가 모두 모여 시상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 승인 △4학년 대동제 사업안 확정 △졸업앨범 기획안 확인과 확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향앞으로... 학생복지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가위 귀향버스 접수 받고 있다. 봄비는 접수창구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고향을 향한 듯 하다. 김윤미 기자 junikija@hanmail.net

"학생상담실로 오세요"

각종 검사 취업·유학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힘든 고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혼자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학생상담실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는 게 어떨까.

학생상담실(실장=정진환·교육학)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성검사와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과 선택이나 전공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성격유형검사 △일반적성검사 △인·적성검사 등 각종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 또한 학업, 성격, 대인관계와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상담하고 유사한 고민들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집단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각종 검사 외에도 학생상담실에서는 단기여행 또는 어학연수

나 공부를 목적으로 1년 미만 동안 미국 방문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추천프로그램(이하 URP)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URP추천서는 인터뷰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발급 절차가 간소하다는 이점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고 있다.

또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유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상담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유학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그밖에도 병역의무자들에게는 국외 여행에 필요한 추천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학생상담실 이영희상담원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며 활발한 이용을 당부했다. <영> fe-iks@hanmail.net

다서관 서점 할인 판매 단행본 등 30일까지

본교 다서관 서점은 오는 30일까지 단행본 사적 1천 5백여권을 25%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할인 도서는 △문예출판사의 '나와 너' △도서출판 해냄의 조정래 소설 '아리랑' △김은성의 '이태준 전집' △문학과 지성사의 시집 등 주로 사회과학과 문학부문서적이며, 어학과 실용 부문서적 등도 포함되어 있다.

중도 추석연휴 휴관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한가위를 맞아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2층 과제도서실과 3층 참고도서실을 휴관한다.

1층과 4층 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편입생들은 학생증 미발급 관계로 오는 9일까지 도서관을 출입할 때에는 합격증을 수취실에 제시해야하며, 도서 대출시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외국어 특강 오늘부터

2000학년도 가을학기 외국어 특강이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6주에 걸쳐 진행된다.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의연·영문학)은 영어회화 뿐만 아니라 △SCREEN ENGLISH/LISTENING & SPEAKING △WRITING & SPEAKING △AFK & CNN △일문어 회화 △나용준의 TOEIC CLINIC △TOEFL 준비반 △TEPS 강좌를 준비하였다.

한가위한마당 오는 7일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유명곤·산공4)는 오는 7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2000년 한가위 한마당'을 연다.

한가위 한마당은 △떡 나누어 먹기 △떡메치기 △상설 우리 놀이 △보물찾기 △제기차기 대회 △세발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줄다리기 대회와 보물찾기는 학생식당 식권과 다량관 복지매장 무료 이용권 등이 상품으로 준비되어 학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맞이 송편만들기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오는 6일, 계산관 앞마당에서 '송편만들기·사랑나누기' 행사를 연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

는 이번 행사는 본교 재학생을 비롯한 교수, 직원 등 동국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예쁜 송편 시상식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탈북학생들과 남북의 명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날 빛은 송편은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동원 대표자 회의

동아리 연합회(비대위원장=이해연·사회3)는 오는 6일 전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다.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방중 사업 평가와 하반기 사업 토론회로 진행된다.

또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열리는 '열린 대동제'의 주제와 내용, 일정 등을 논의한다.

불대 추계불교유적답사

불교대 학생회(회장=주성하·불교4)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추계불교유적답사'를 떠난다.

'현장에서 생활속의 불교를 느끼는 기초 아래 시행되는 본 행사는 불교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리산 △화엄사 △쌍계사 △실상사 △천은사 △찰불암을 답사할 예정이다.

문과대 비대위 결성

문과대 학생회는 신석철(국문3) 학생회장의 사임으로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배경훈·독문4)를 결성했다.

신군은 지난 5월 한총련 탈퇴서를 작성하고 현재 휴학한 상태이며, 그 결과 비대위는 학생회장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범대 가을 농활 실시

사범대 학생회(회장=임은희·수교4)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제천으로 가을 농활을 떠난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	백승석	하이텔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	(02)2260-3491 · 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7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제회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불교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전통사찰음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전통사찰음식 조리실습강좌를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좌기간 : 2000년 9월 20일 - 11월 29일총(11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 모집기간 : 2000년 9월 5일 - 30명 선착순 마감
- 대상 : 동국인(남녀불문) 누구나
- 수강료 : 7만원(등록비: 4000 + 재료비: 6,000 × 11회)
- 접수장소 : 여학생실(사범대 옆 계산관 1층)
- 문의 : 여학생실(2260-3056)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DUBS 2학기 방송편성표

일	회	수	목	금	
8:30	PD 박준신 ENG 박지호 ANN rotation	PD 이우현 ENG 안현영 ANN 이인희	PD 박정환 ENG 안현영 ANN 변지철	PD 이송우 ENG 박지호 ANN 김수현	PD 김수정 ENG 송민준 ANN 문인성
12:10	DUBS 2학기 편성표				
12:15	DUBS 2학기 편성표				
12:20	NEWS IN ENGLISH PD 양신영 ENG 황재원 ANN 김유라	복합 비로 읽기 PD 박지영	세계건강문 PD 홍수영	TV 속으로 PD 유시정	DUBS
12:30	자유소리 PD 양신영 ENG 안현영 ANN 박현근	북한 비로 읽기 PD 박지영	세계건강문 PD 홍수영	TV 속으로 PD 유시정	리레스트
12:40	시민의 소리 PD 박지영	후론 지구촌 찾아서 PD 유시정	시사영어 따라잡기 PD 조혜정	오늘의 역사 PD 홍수영	ENG 회장재 ANN 이우진
12:50	DUBS 2학기 편성표				
4:50	DUBS 2학기 편성표				
5:00	PD 박준신 ENG 황재원 ANN 문인성	PD 박정환 ENG 송민준 ANN 변지철	PD 김세형 ENG 황재원 ANN 이인희	PD 이송우 ENG 송민준 ANN 이인희	
그년	The Live PD 김수정 ENG 송민준 ANN 박규남	홍트기의 PD 이우현 ENG 회장재 ANN 박현근	배낭속에 담긴 여행일기	PD 이송우 ENG 회장재 ANN 박현근	동역의 반상
5:15	이대기 PD 정현진	선명어의 WEDD (들린스) PD 박정환 ENG 송민준 ANN 김진영	영화만들기 PD 김세형 ANN 이인희 이우진	수원어의 ROCK SPACE	DUBS 보도부 뮤직비디오팀
5:40	ANN 김동미			PD 이송우 ENG 김수현	PD 박규현 ANN 투서정

DUBS

4자회담과 평화회담 체결

북·미 수교 통해 평화체제로 전환돼야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남북은 아직 기본적으로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다"며 "앞으로 4자회담에서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함으로써 과거의 불행한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교류를 이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6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동안 '개점 휴업' 상태에 있던 4자회담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한 각종 반응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회담개최의 열쇠 쥔 북

4자회담은 1996년 한·미 두 나라 정상 이 공동으로 제안한 형식에 따라 발표되었지만 형식만 공동 제안이었지 실제로는 미국의 독자적인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남측에서는 남북 2자 회담을 통해 정전 협정 대체 문제를 다루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추진, 보장하는 '2+2회담'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북측의 북미간 잠정협정을 제안 받은 상태였으며, 미국 정부당국

및 고위급들의 '북한붕괴설'이 공식 인증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잠정합의에 속도를 낼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북의 잠정 협정 체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대북 정책'에 기초한 4자 회담 구상을 내놓고 그 구상 안으로 북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했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4자 회담에 나섰다. 4자회담 개최의 열쇠를 쥔 북한은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피보호국인 남한과 동등하게 정전 협정 처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결국 한·미 공조체제의 연장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적어도 4자회담은 남한이 주장하는 '당사자 원칙'을 파기하는 것이었으므로 북측으로서도 일종의 성과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북측을 4자회담으로 나오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주한미 군철수 △조·미 평화협정 체결이란 두 가지 원칙을 고수해 오면서 97년 12월 1차회담부터 3년 가까이 제자리를 면치 못했다.

기본 입장 고수하는 북한

정부는 그 동안 닦아놓은 '4강 외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4자회담을 통해 평화체제 확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은 줄곧 4자회담을 구상해낸 만큼 이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북한의 행보를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북한은 기본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 남측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 2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군사문제를 회피하는 북측의 입장이 이를 잘 반영한다. 북측의 입장이 이런 만큼 당분간 4자회담에 참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미국은 38도선의 수립 및 분단체제의 관리로 인한 분단 영구화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주세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기획국장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두 코리아 정책(Two-Korea Policy)이다. 북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펴면서 남에 대해서는 우호정책을 펼치는 두 코리아 정책은 미국이 7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한반도 정책이다.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의 '공명성 1호' 발사로 미국의 고립압살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려 할 것이고, 그 협상이 바로 북·미 수교가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오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나가려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간의 평화협정 체결의 정도는 양국간 수교의 진척과 행보를 같이 할 것이다.

전구성원의 합의로 공간문제 해결을

공간문제가 또다시 고개를 들었다.

△복수전공 활성화 △야간강좌에 있던 6개학과 주간 전환 △교수채용에 따른 연구실 공간 증대 등 공간부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교수 연구실도 모자라 99학년도부터 신규로 채용된 교수의 일부는 2인 1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제2도서관' 신축으로 강의동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강의실 부족 문제는 당분간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교는 공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산에 제3캠퍼스를 건립하여, 이공계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내에 제3캠퍼스를 통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공과대 일부 전공에서 실시하는 토요일 강의제를 확대 실시하고, 계절학기를 확대해 3학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전공과목의 가상강좌를 늘리고 특별 시험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면한 공간부족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문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공간문제 대토론회'(가칭)와 같이 학내 여러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오해와 불신을 살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 피해의식을 유발하는 등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교수·학생·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이 모여 공간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마련된다면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공간의 재배치와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학교측은 구성원들을 설득시킬 만한 장기적인 공간정책을 수립·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경주캠 기획연구위원회 설립에 따른 기대

경주캠 기획연구위원회의 구성은 본교가 특성을 지닌 지방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기획연구위원회는 경주캠이 2010년까지 영남 지역의 최상위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와 부합하며, 지난 2000학년도 상반기부터 부서별로 여러 분야의 장단기적인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4개의 분야를 수립하고 이를 각 분과별로 나누어 발전계획을 설정한 것은 기존에 경주캠이 추진해왔던 지방대 생존 전략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과제발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구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건의함 비치, 단과대학·학과단위의 의견수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향 또한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좋게 평가된다.

사실 지난 96년부터 교육부가 편입학 확대조치를 시행한 후 지방대생의 수도 권 소재 대학 진학이 늘어나 지방대 존립 위기문제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의돼 왔다.

더구나 최근 몇 년간 지방대학이 무더기로 신설돼 입학 학생 수가 크게 줄어 들어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도 상당수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지방대학 존폐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1년부터는 대학 입학 정원이 신입생 숫자를 많이 초과한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지방대학이 2001년을 대비하고 있으며 대학간 경쟁이 그 어느 시기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교에 기획연구위원회가 구성된 것처럼 다른 지방대학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마련돼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타 대학에서 연구하고 제시하는 사안들과 차별성 없는 내용을 준비한다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우리학교 발전계획은 다른 지방대학과의 경쟁을 의식하면서 경주캠 자체적인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등 독자적인 종합대학으로써의 자리를 굳혀 나가려고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노력과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각 대학 학생회 '강의백서' 제작 잘못된 강의풍토 바꾼다

족보 방지·수업안내 ... 강의 질 향상 기대

넓은 강의 풍토를 개선하고 강의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공과 교양과목에 대한 각종 정보와 강의 평가를 담은 '강의백서'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제작하는 강의백서는 △강의내용, 교재활용, 평가기준, 수업방식 등을 담은 담당교수 강의계획서 △최근 3년간 중간·기말고사 문제 △강의노트 △수업설문조사 결과 △모니터요원 평가 글 등이 실리게 된다. 강의백서를 보다 내실 있고 믿을 만한 자료로 만들기 위해 담당교수들을 직접 만나 △강의내용과 방식 △수업참여도 △자세평가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또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인원 적절성 △강의 난이도 △시험평가 △강의 방식의 효율성 △강의에 대한 평가 등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도 벌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로 꾸며진 강의백

서는 수강 신청을 할 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교수에게는 강의준비와 더불어 강의 질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류제일(경영4) 사회국장 은 "그 동안 학생은 학생대로 수업선택에 어려움을 겪었고, 교수들도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 길이 없었다"며 "강의백서를 통해 학생과 교수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본교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공과목 수업에 대한 강의백서를 제작한 바 있다. 99학년도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이었던 이정진(행정3)군은 "학생 스스로 수업권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밖에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는 올해로 3년째 강의백서를 제작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의 활발한 강의백서 제작은 시험 족보를 없애고, 전공 수업의 가이드

동국만평
임소희 takethepower@naver.com

김은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이제 병원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으로 오십시오

한·양방 협진 / 최우수 의료진 / 첨단의료시설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한인고대학 부속

세계 제일을 추구 합니다

한국불교 1천6백년, 민족의 등대지기 1백년, '동국'의 향기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자비실현에 앞장섭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불교의 손길은 와 있어야 하듯 중생이 아프면 불교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 맨 앞에 동국대학교 의료진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진은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경주한방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분당한방병원, LA로알한방병원등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서울 강남 중심지에 또 하나의 역사-강남한방병원이 개원되어 세계제일의 한방병원을 향해 서울시민의 사랑과 입원·외래환자, 2천만 불자의 사랑을 받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인간화철단화의 바탕위에 한방과 양방이 어우러진 21세기 열린 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진료과	진료교수	전문 진료 분야	클리닉/검사
내과	1 정지천	성인병(중풍, 당뇨병, 전립선비대)	성인병
	2 임성우	신경비뇨기 질환(신증후, 부종, 전립선염, 성염기질환)	내 상
과	3 이원철	순환기 질환(고혈압, 저혈압, 심정맥, 동맥경화)	예방의학
	김영일	소화기 질환(위장염, 간염, 변비, 설사), 호흡기 질환(감기, 기관지염, 천식)	
부인과	김영일	경관기질환, 수족냉증, 월경장애, 불임증, 골반염, 자궁수술 후유증, 유산, 산후풍, 성기능 장애, 여성 건강상담, 여드름 및 비만	경관기 불 임
소아과	최인화	하위아, 저신장증, 만성기침, 소아천식, 학생건강, 아노증	성 장
가정의학과	배재익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종합검진센터

진료과	진료교수	전문 진료 분야	클리닉/검사
인과	최인화	소아(백제해(근시, 약시), 안구건조증)	안과
		안과질환(중, 이명, 축농증, 중이염, 말레르기성 비염, 이토피파부염(태양)	시력저하
이비인후과	김영일	귀내염, 성대비대, 어드름, 두드러기	귀내염
		알레르기성 피부염, 환경발음증	알레르기성
신경정신과	구명수	신경증, 정신지체, 두통, 현훈, 치매, 우울증, 향병	두통, 향병
침구	이승덕	신경근육계질환, 급성 및 만성 통증질환, 각종관절질환, 각종 미비상질환	통증, 관절
		부항요법, 전통침구요법, 팔재침질침	
과	김강성	라비	라비
		학주질환(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 골반염증 등, 척추교정, 신경통, 물리치료, 비만	척추, 비만

한·양방 종합검진센터

찾아오시는 길

○ 종합건강검진
- 기본, 일반, 정밀검진
- 교직원검진
- 예비부부검진
○ 성인병건강검진
- 공무원검진
- 교직원검진
- 직장인검진
○ 채용신체검사

◇ 좌석버스 : 37, 64, 64-1, 731, 72, 933
◇ 일반버스 : 38-2, 56-2, 62-1, 66, 117, 141-2, 212
◇ 지하철 : 7호선 학동역 7번출구(도보1분)
2호선 역삼역 7번출구 38-2 승차(5분)
3호선 압구정역 4번출구 38-2 승차(3분)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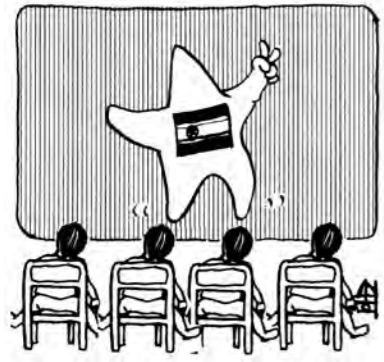
Dongguk Univ. Gangnam Oriental Hospital

◇ 진료비 감면 : 스님, 본대학교직원, 교직원가족, 재학생, 동문, 불교신도 진료시 진료비 감면 규정에 의해 감면해 드립니다.
◇ 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 : 02)3416-9700, 접수 : 3416-9725~6, 입원실 : 3416-9753

동국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양질의 의료시혜와 친절간호로 봉사하며, 서로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조국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합니다.

동약로

북한영화 보셨어요?



“저거 봐봐. 북한 만화 영화래.”
“아, 북한에도 만화가 있나?”
중앙도서관을 나서는 남녀 두 학생은 도서관 앞에서 상영하고 있는 북한만화영화 ‘낙랑공주’를 의식했는지 스크린으로 눈길을 돌린다.
본교 총학생회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중앙도서관 앞에서 ‘이북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불가사리를 포함한 3편의 북한영화를 상영했다.

“태권V 같은 한데, 뭔가 색다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낙랑공주’를 지켜보고 있던 학생이 어렸을 때 봤던 만화영화가 생각났는지 고개를 끄덕인다.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으로 북한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우리 나라에서 상영된 북한영화 ‘불가사리’는 북한에 대해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했다.

“김일성 찬양에 관한 내용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 차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이번 북한영화 상영은 통일에 다소 무관심하다고 지적되어 온 젊은이들에게 북한에 대해 갖고 있던 불신과 선입견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앞으로도 총학생회는 ‘이북 바로 알기’ 운동을 벌이면서 매주 한 회씩 북한영화를 상영할 예정이어서 북한과 남한의 사고 차이를 좁히고 한민족으로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초보단계인 우리에게 북한 영화는 많이 낯설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많지는 않지만 옹기종기 모여 앉아 북한 영화를 보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소중한 마음이 느껴진다.

박지영 기자
starofeast@hanmail.net

파국으로 이어지는 의료계 파업

의료보장과 잘못된 약사법 개정 등 제도적 모순해결과 의료계 자정운동 함께해야

일단 뚜껑이 열리면 끊임없이 문제들이 쏟아지는 ‘판도라의 상자’ 처럼 의료분업 사태 이후 의료계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은 애초 정부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 8월 1일부터 재파업에 돌입, 의료계의 2차 파업을 끌어냈다.

결국 정부는 종전의 입장을 버리고 △의보수가 인상 △전공의 처우 개선 △의대정원 동결 등 타협책을 내놓았지만 의료계는 ‘재정조달도 불분명한 수가인상’이라는 당근보다 의료분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약사법 개정’과 ‘진정한 의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 보라매공원에서 학생, 전공의를 비롯한 전국 의사들이 모여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학생 대동함마당’ 및

으로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의권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 개혁과 의사 사회 내부 자정운동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의료분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은·계명대의대 분4)는 지난 8월 5일 의과대학 학생 전원의 자퇴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속 병원 전공의들 또한 파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각 대학에서는 전막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참의료·사이버선전단을 만들어 시민과 학생들에게 의료분업의 올바른 시행에 대한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은 ‘넘으면 안되는 선’을 넘었으며 정부는

의사 가운데 벗고... 시민단체 항의하고...
환자 기다리고... 정부 무심하고...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을 진행했다. 전공의들과 전국 각지의 병원의, 개업의 등은 비합리적인 의료현실을 비판하며 ‘의사답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지난 7월 의료계의 집단 파업으로 의사들의 파업은 집단이기주의 또는 기득권층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냉담한 시선에 대해 중앙대학교 의과대 김주원(본2) 부학생회장은 “단순히 의사집단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보장과 잘못된 약사법이 개정되어야 진정한 의료분업이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 윤진영(본2) 학생회장은 “의약분업의 제도적 모순으로 제일 큰 피해를 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얻어내 함께 의료 개혁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현종(본3) 학생회장은 “교과서대로 된 진료 못하고, 경제적

무원칙하고 즉흥적으로 대처하였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가의 부담이나 재정지원은 가급적 축소하고 그 몫을 민간에게 떠넘기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의료부문에 도 반영되어 의사들의 강력한 저항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 사태는 ‘의료제도’의 문제이며, 개인주의적인 의사들이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화되어 의료개혁을 공론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의사들이 환자를 버렸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들은 결코 단시간의 파업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료개혁을 이루어 내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그들의 소임을 다했으면 한다.

김윤미 기자
junikiga@hanmail.net



본교 의과대학 비대위 위원장 박재완(본4)을 만나

“참의료 실현위한 끝없는 싸움”



박재완(본4)군 의과대 비대위원장

현재 본교 부속병원에는 ‘올바르지 못한 의약분업’ 시행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상황이며 의과대학 학생들은 전원 자퇴서 제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본교 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재완(본4)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자퇴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는.
= 전국 40여개 의과대학과 함께 자퇴서를 제출하고 의약분업 시행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의료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합리적인 의약분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자세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사회 전체가 가난한 시절 병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판매했다. 이러한 관행이 잔존하면서 약사가 의사 행세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의조제나 대체조제에 대한 확실한 언급이 없는 한 올바른 의료계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 전공의들의 파업은 사회적으로 ‘특정계층의 잇속 챙기기’로 비난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국에 7만 여명의 의사가 있지만 호의호식 하는 의사들은 25%에 지나지 않는

다. 사실 전공의들은 보수도 적을뿐더러 열악한 환경에서 진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40시간노동”을 외치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이렇다면 40시간이 다 채워진다. 이들의 권리는 누가 보장하는가?
- 이번 농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 참 의료와 교과서적 의료를 실현해 전공의의 권리를 회복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제도의 올바른 개선, 의료진 달 체계의 확립, 정부의 의료보험 50% 국고지원 약속, 의료교육 문제점 개선, 의료환경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강행한다는 비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으며 전공의들은 ‘무료봉사진료’라는 비공식 진료를 파업 중에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몰고 온 정부를 비난해야 마땅할 것이다.

박현호 기자
tery@mail.dongguk.ac.kr

태극기+인공기=단일기



태극기와 인공기가 만나면 무엇이 될까?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광복절 등 각종 민족·민주 행사에 태극기 대신 단일기가 팔려가고 있다. 하안 전에 파란 한반도가 그려진 단일기는 지난 91년 포르투갈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와 일본 자바 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지난 8월에 열린 2000년 통일대축전 행사장은 단일기의 물결로 채워지기도 했다.

현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장=오종렬)은 ‘7천만겨레 단일기 달기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남한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운동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을 통해 단일기가 북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연합에 전달될 계획이어서 북에도 단일기 운동의 새싹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 단일기 운동본부의 김은아씨는 “남쪽에서 보낸 단일기가 북의 곳곳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북에서도 단일기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단일기를 두고 이색 논의가 벌어지기도 했다.
“왜 단일기에는 독도와 울릉도가 없지?” 단일기를 보고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난 98년 일본과 맺은 ‘신 한·일 어업협정’으로 독도가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었고, 일본의 땅이 계속되고 있어 독도·울릉도 표기 문제가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에 단일기에 독도가 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독도표기 단일기 입장’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조직했다. 또한 네티즌들은 사이버상에서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며 표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hyunrla@hanmail.net

인권운동가에게 듣는다

보편적 진리를 위해 싸워라

국민의 정부에서 신음하는 인권 ... 반인권적 역사반성 경각심 필요

현대 사회에서 '인권'이란 말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년전의 일이다. 6년여간 전세계에서 벌어진 2차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인류 모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시켰고 그 결과 인류는 2차대전의 참화와 반인권의 역사를 반성하며 '인권의 시대'를 선언, 세계인권선언을 탄생시켰다.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존엄성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로 시작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해방이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러나 인권 정신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역대 군사정권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했으며, 통제와 강요에 저항하는 이들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렀다. 30년간의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가 출범했지만 '인권'은 여전히 많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인권법인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반인권시대'가 지속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지난 6월의 남북 정상회담과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의 국면 전환으로 국가보안법이 이미 '유명무실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국민의 다수가 이 법에 묶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시비도 줄어들지 않아 경찰서, 교도소 등의 시설은 국

민에게 인권침해기관으로 깊숙이 자리잡았다. 이에 국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인권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인권존중의 정신은 여전히 뒷걸음질치고 있다.

국가권력기구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인권문제에 관련한 그에 비금기는 위상과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할데도 불구하고 현정부가 세우려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이 비정부 기구이다보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인 노동권 역시 아꼴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은 예나 지금이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구사대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니 어찌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어떤 이들은 예전에 비해 많은 것이 나아졌다고 말한다. 그래, 그 말 역시 틀리진 않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서는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것은 너무나 익숙해 인권침해라고 생각조차 못한다.

누가 주민등록증에 143개의 개인정보가 취합되었다는 것을 알겠으며 그것이 개개인을 차별하는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겠는가?

인권은 누가 누구에게 배주는 선심성 특혜가 아니다. 인간이기에 누려야할 보편적 인간존중의 권리일 뿐이다. 따라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그 순간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워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말할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인권을 결코 획득할 수 없으며, 차별이 없는 사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유해정
인권운동사랑방 총무

동문 칼럼

냉전구조 녹여내는 눈물

"북한은 펜타곤(미국 국방부)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독지가와 같은 존재다. 한반도의 평화는 미 국방부의 계획을 망쳐 놓았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은 며칠전 진보적 평론가의 기고문을 소개했다.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는 마당에 펜타곤으로 상징되는 미국 내 매과들은 아직도 북한의 위협을 들먹이며 아쉬운 감정을 감추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고 가난하고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북한은 앞으로 15년간 600억 달러가 들어가는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아 온 게 사실이다. 북한이 평화의 대열에 들어 선다는 것은 주한 주일 미군을 철수해야하는 악몽같은 시나리오이다.

한반도 평화를 시샘하는 주변 열강의

견제를 뿌리치고 남북정상이 만나 민족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 남북정상회담의 결의에 찬 모습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김-김회담의 첫 성과인 8·15이산가족 상봉이 있던 날, 서울과 평양에서 감동적인 장면들은 말할 나위없고 취재하는 기자도 TV앞의 한민족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 본 거의 모든 인류가 눈물을 흘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엄청난 양의 눈물은 50년을 삭여온 민족적 한의 산물이었고 한반도 냉전구조가 녹아내리는 붉은 쇠물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만남 뒤에 숨겨진 허전함 또한 컸을 것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고향을 등진 옛날 나이의 청년들이 노년이 되어 고향에 돌아와 노년 것은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이었을 터이다. 북에서 피나는 노력과 충성을 다하여 얻은 영광을 안고 돌아온 그들이 서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미제에 찌든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북으로 돌아가는



정 남 기
연합뉴스 민족뉴스
취재부장
경력 68졸

사람들, 북의 햇볕은 산야와 삭막한 세상살이 모습을 가슴에 간직한 채 남으로 오는 노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북쪽 동포들은 위키워 호텔방에서 남쪽의 TV를 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체질화된 정치적 대화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든 것이라든지 끝없이 남쪽의 기자선생들과의 접촉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경험을 곱씹으며 오늘날 회한에 잠길 것이다.

물안개 또다시 2~3차례 상봉이 이루어진다. 자주 만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어색함도 눈녹듯 사라질 것이다. 상대의 약점이나 다른 점을 들추지 말고 좋은점과 공통점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통일로 가는 대장정은 이미 큰 계도에 들어섰다.

호주제 폐지로 여성을 인간답게

여성을 도구로 여기는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호주제는 일제 식민지배 초기에, 조선왕조가 중국 왕실로부터 도입한 종법제(아들의 아들로 권력과 재산이 세습되는)와 일본의 호주제를 접목시켜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신분등기제도이다. 호주제로 인해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남성집안에 입적되고,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입적되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부계혈통제도인 것이다.

호주승계순서는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가족인 직계비속여자-처로 되어있다. 즉 결혼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아들, 손자, 증손자가 1순위이며 혼인외의 자녀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1순위가 된다. 부계혈통제는 족보, 가문, 대가, 독자, 종중, 제사 등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통해서도 탄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는 남자는 씨, 여자는 밭을 가진 도구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거짓말'에 기초한다. 명절이나 제사때 여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남성집안의 죽은 귀신들을 위한 의식에 헌신할 것을 강요당하며 대를 이어 행사를 주관할 아들을 낳을 것을 강요당한다. 일년에 삼강오륜을 통해 3만명씩이나 여자를 낙태하는 현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오랜동안 부계혈통 제도와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그러한 형태의 결혼 생활이나 일상을 기억할 수 없는 원칙 혹은 미용양속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러나 남성중심적 호주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이며 앞서가는 나라들 중에서 부계혈통제

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디에도 없다.

부계혈통제는 생리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것이므로 거의 모든 나라들은 부모양계혈통제를 택하고 있다. 동덕여대의 조준희 교수도 호주제폐지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개적인 토론석상에서도 "우리의 미용양속인 가족제도를 말살하고 급수와 같은 오랑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무리들은 능지처참을 해야 마땅하며 호주제가 없어지면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범죄천국이 되며 마피아 천하가 될 것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발언하며 "99년 11월 한국 정부의 보고에 관하여 호주제가 남성우위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태아성감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제를 비롯한 부계혈통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폐지로 한국 사회는 전근대와 결별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는 힘찬 도약기를 맞게 될 것이다."

유엔 여성지위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여성에 관한 모든 차별철폐협약 제 16조 '사'항 비준의 유보철폐를 통해 엄마의 성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99년 11월 한국 정부의 보고에 관하여 호주제가 남성우위 사회를 반영하고 있으며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태아성감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호주제를 비롯한 부계혈통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폐지로 한국 사회는 전근대와 결별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로 가는 힘찬 도약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운영위원

언론비평

언론, 의료대란 그 후...

이번 의료대란을 통해 의사들은 적어도 두 부분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는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다. 오랫동안 의사는 전문성을 가진 존재로 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왔지만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 당연한 것으로만 여겨왔다. 그런 탓에 자신들의 전문성이 침해당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자 의료대란을 획책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다.

하지만 몇 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대란을 통해 의사들도 자신들이 과연 어떤 사회적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두 번째 인식은 언론의 힘과 관련된 것이다. 의사들은 시종일관 언론에 불만을 터뜨려 왔다. '마녀사냥'

어졌던 혼란은 작은 전쟁에 비유될 만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현실 파악 능력 부족, 대안 제시 미흡을 반복한 언론도 의료 대란 버금가는 혼란을 사회에 선사하고 말았다. 언론은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일관적이지 못한 정보들을 제공해 혼란이 있었다고 화살을 의료계로 돌렸다. 이 같은 변명은 IMF 통치 경제를 맞았을 때 내놓았던 변명과 비슷해 보인다.

IMF 통치 경제를 맞아 언론은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기 보다는 관료들의 무능함에 화살을 돌렸다. 이번 의료대란은 예견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언론은 이를 단순히 의사와 약사간의 분쟁으로 축소, 환원시킨 의제만을 제공했다.

의료계의 전문성, 그들의 사회적 지위 변경에 따른 불안감 등을 적절히 추려내지 못했던 것이다. 언론계의 태만은 결국 의료계 비난으로 일관되게 이어졌고, 사회 전체가 작은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르기에 이르렀다.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성에 대해 고민해볼 계기를 갖게 된 것이 이번 의료대란의 작은 수확이다. 하지만 그에 멈추어서는 안될 일이다. 너무 값비싼 비용을 치른 이번 사건으로 언론도 의료계와 같은 수준의 고민을 해야 한다.

자신의 공공적 전문성이 발휘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가 겪은 공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말하기 편하고도 의사들만 한 쪽으로 밀어붙이며 대중추수적 언설들을 퍼내고 뒷집을 진 책임을 이제는 통감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그 같은 자성이 없다면 언론은 언제나 듣기에만 좋은 소리를 해대는 '스트레스 해소용' 소리꾼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다.

원 용진 교수
사과대 신문방송학



“우리는 인권침해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

사상의 자유와 여성·노동인권 보장이 과제로 남아

한국사회는 인권에 대해 '황무지'나 다름 없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와 80년대 '광주'와 함께 시작된 전두환 독재정권기에 인권탄압은 절정에 이른다. 당시 군부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고, 독재타도를 외치던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공포정치로 통해 탄압했다. 언론 또한 군부의 압력으로 통·폐합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목살 되었으며 경제성장이라는 가치 아래 많은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 당했다.

또한 유교전통에서 비롯된 가부장적 가치관은 여성의 인권을 억압해 왔다.

최근 인권대통령을 표방하는 김대중 정부는 비정부·비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롯데호텔 노조파업때 경찰력을 동원, 3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국가보안법을 통한 구속, 처벌 등은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 인권침해의 교과서 국가보안법

"1984년 가을, 신참형사 영호. 그는 선배 형사들의 고문을 첫날부터 지켜본다. 바락

은 피범벅이고 고문기구들이 고문실 주변에 널려있다. 이를 지켜보던 영호는 어느새 운동권 학생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영화 박하사탕의 한 장면은 당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탄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최근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의 개정과 통폐합을 거치면서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화해 분위기로 흐르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모호한 잣대로 인권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않고서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나, 법원의 실정법을 이유로 한 인권침해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대판 노예’ 외국인 노동자

"머칠째 계속되는 일로 지치지만 실들이 없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고용업주는 몇 달째 밀린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다쳤지만 여태껏 보상은 커녕 치료조차 받

지 못하고 있다."

'현대판 노예'라 불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으며 노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 들어온 산업기술인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대략 24만 여명이며, 이 중에서 불법체류자는 16만 여명으로 국내체류 외국인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으로 국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고용업주들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 감금하는 등 '노예'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의 인권침해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도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인터넷 기업들은 가입 고객에게 나이, 성별,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도 배우자의 성명, 재산수준, 최종학력 등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를 업체들은 정보보호 시스템

이 취약하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대학생 두명이 인터넷 비즈니스업체의 고객 정보를 빼내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이 빼낸 정보에는 개인 신상 정보나 연락처 뿐만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 의견 전달이 자유로워지면서 익명으로 무책임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설로 피해를 주는 등 인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정치사적으로 격동의 7.80년대를 거치면서 90년대 문민정부의 수립으로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는 과거에 비해 여러 면에서 인권의 신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국가보안법을 통해 검열과 사상의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호주제 등을 통한 여성의 인권침해, 공안탄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인권침해문제 등의 해결은 한국 사회의 과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정보사회에서의 인권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구현에 뿌리를 둔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인권운동을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과거의 잔재들을 청산하고 인권 선진국으로 하루빨리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현중 기자
rocket123@dgu.ac.kr

월경페스티벌

“여성의 한달이 당당해진다”



“왜 신경질이야! 너 마술걸렸지?”
 지금까지 여성의 월경은 한 달에 한번씩 ‘마술에 걸린다’, ‘그 날’ 등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감춰져왔다. 표현하기조차 껄끄럽고 불결한 그 무엇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피도록 여성직원이 있는 상점에서 생리대를 구입하고 까만 봉투 속에 꼭꼭 숨겨 나와야 하는 여성들만의 고통은 이같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대변한다. 사실, 여성은 평생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날들을 월경을 하며 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성의 5분의 1은 월경을 하고 있다. 월경은 모성의 기반이며 상징이다. 그럼에도 월경은 늘 부끄럽고 감춰야 할 어떤 것, 심지어 구질구질하고 찝찝한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이화여대에서는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성스럽고 즐겁게 받아들이자는 사람들이 모였다.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이화여대 여학생들로 구성된 여성문화기획팀 ‘블터’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월경 페스티벌’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의 페스티벌은 이화여대 무용팀 ACTION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월경에 대한 즐거운 상상을 담은 패션 퍼포먼스 △월경 경험을 목소리로 담아내는 월경가 발표 △월경이 지닌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달의 변화가 여성의 월경주기와 닮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 ‘달떠들떠’라는 행사를 마련하고 월경 경험을 기분이 들뜨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자는 새로운 희망을 모색하기도 했다.

월경을 ‘월’마다 하는 ‘경’ 사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하는 블터의 유미리(서울대 사회4)장은 “월경을 여성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긍정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여성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바탕”이라고 말한다.

어쩐지 입에 담기가 주저스러운 ‘월경’. 월경은 자연의 순리이며, 여성의 몸이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어온 월경을 여성의 입으로 마음껏 드러내는 이색행사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여성들 스스로가 월경을 담담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남성중심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시선은 계속될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서태지 컴백과 신세대

19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으로 우리 사회의 신세대들에게 독특한 문화를 탄생시켰던 서태지가 은퇴 반복과 함께 은둔을 벗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그의 컴백과 관련하여 지상파 방송 3사 등 방송매체들은 컴백쇼와 기자회견 등에 대비해 특별편성과 독점 생방송권을 갖기 위해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서태지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며 앞으로 신세대들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서태지가 90년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들은 신세대 헤게모니·패러주주의와 경박함의 미학, 반바지에서 힙합 바지, 앞으로 내려 빛은 머리에서 염색한 핑크머리, 뽀한 사랑터럼에서 노골적인 사회비판까지 이제 유행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되었다.

1962년 영국에서는 리버풀 출신의 네 젊은이가 ‘러브미 두’라는 노래로 단번에 팝계를 정복하고, 70년 공식 해체할 때까지 팝음악의 역사를 새로이 썼다. 바로 비틀즈였다.

비틀즈와 서태지를 비교하는 것은 아이러니컬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대중음악의 흐름을 혁명적으로 바꾸었으며, 당시 신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이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춘기는 신체적으로 급속한 발달과 제2차 성징의 급격한 출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신적으로는 강한 자주성의 욕구가 있지만, 참된 자주성의 충실이라는 의미에서는 불안정하다는 사실, 그 자주성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으로 특색 지어지며, 청년기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반 성인, 그러면서도 흘러 넘치는 체력, 치밀

달하나 천강에

어 올라오는 성 충동, 미래에 대한 불안, 고뇌 등은 그야말로 인생 가운데서도 최대의 질풍노도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각종 시험은 그것이 격렬한 경쟁이라는 일면과 또 한가지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때에 서태지 문화에 대한 맹신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주역으로서 젊은이들이 서태지를 바라보는 올바른 방향은 첫째 절제, 둘째 가치관의 확립, 셋째 그의 모습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항상 생각하며,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하성
인문과학대
사회체육학과 교수

지하철 예술무대

미지의 지하공간이 새로워진다

시민 찾아가는 문화공연 ... 일상 속 문화예술의 장 마련

시민의 든든한 이동수단인 지하철이 언제부터인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벗어나 가까운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된 ‘지하철예술무대’는 종로3가, 을지로입구, 경복궁역 등에서 현대무용, 통기타연주, 하모니카 연주 등을 선보이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5시, 3호선 종로3가역에서는 인디밴드 ‘오르가즘 브라더스’의 공연이 있었다. 색소폰, 통기타, 드럼기타, 더블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5명의 젊은이가 뽐내는 재즈풍의 선율은 바빠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연주를 듣기 위해 자리잡은 각계각층의 관객은 ‘오르가즘 브

라더스’가 들려주는 음악으로 일상의 피곤을 잠시 잊는 듯했다. 흔히 접할 수 없었던 거리공연에 낯설어 하던 시민들조차 공연후반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거나 리듬을 맞추곤 했다. 연주자들이 펼쳐놓은 악기함에 막대시장을 한뼘쯤 넣어주는 할아버지부터 음악에 맞춰 발로 박자를 맞추는 사람까지 음악을 느끼고 반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일상속의 문화는 그 자리에서 만큼은 관객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힘을 뽐내었다. 이러한 지하철 공연에 대해 한 시민은 “실력을 떠나, 시민이 찾아 다니는 문화가 아닌 시민을 찾아오는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가가기 쉬운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어수선한 공연환경과 시민들의 관람의식

은 문화예술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데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한다. 지하철이라는 대중적인 교통공간을 이용하는데 따른 소음은 접어놓고서라도 공연자가 들고 나온 소품이나 공연장비를 함부로 만지는 몇몇 시민들의 태도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심지어 재즈공연 중에 트루트를 연주해 보라고 하는 관람자의 무분별한 행동 때문에 공연이 중간에 중단되기도 하고 예정시간 보다 일찍 끝나는 등의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민을 위해 기획된 ‘지하철예술무대’인 만큼 공연에 대한 이해와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이시간에도 지하철공간의 어디에선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예술무대가 꾸려지고 있을



지하철예술무대 공연중인 인디밴드 ‘오르가즘 브라더스’

것이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하철 예술무대’인 만큼 공연자와 관객의 입장을 떠나 시민대 시민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좀더 즐거운 문화예술의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우리가 잠시 일상을 잊고 지하철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괜찮아, 그저 판짓일 뿐인걸”

판짓 문화축제 ... 개인의 다양성 인정·발휘하는 자리

연극의 메카 대학로가 ‘판짓문화축제’로 시골벽적적이다.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판짓하지마’란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판짓’이란 영웅한 행동이나 규칙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번 문화 축제는 ‘판짓’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축제 첫 번째 행사로 ‘2인극 페스티벌’이 지난달 5일부터 동숭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오는 2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두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2명의 배우가 무대를 이끌어 나가는 독특한 극 형태를 선보이며, 젊은 연극인 몇몇이 모여 소외된 주제와 장르를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건물 옥상과 같은 곳을 무대로 활용하여 관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옥상 야외무대에서 시연된 ‘장자의 점’이란 작품은 전제라는 한 여인이 죽기 직전에 꿈 이야기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굳은 수절맹세를 하지만 남편이 죽자 개가를 하려다 구렁이에게 물려 죽는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장자는 꿈에서

나비 꿈을 꾸고 나비는 꿈에서 장자 꿈을 꿴다고 한다’를 모티브로 하여 전래동화 같은 느낌을 준다.

비록 무대 위의 배우는 2명에 불과하지만 다양한 탈을 통해서 여러 인물을 표현한다. 마당극 형태로 진행된 이 작품은 구성진 소리와 탈춤으로 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전통놀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사물놀이와 타악 위주의 곡으로 관객의 흥을 돋우기도 한다.

이 2인극에 참여한 본교 연극영화과 94학번 우미화(28세)씨는 “판짓은 현실탈피가 아닌, 개인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성의 표현이다. 앞으로 관객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화 축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판짓문화축제’의 의미를 밝혔다.

‘판짓문화축제’는 공연 기회가 적은 배우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관객들에게

연극이란 매체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축제는 개인의 생각과 움직임이 어떤 틀에 맞추기보다는 각각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편익률적인 연극공연에서 벗어나 색다르고 파격적인 공연문화의 흐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fullcourse@hanmail.net



매체비평

- TV 편

'목표달성! 토요일'

"꿀벌들의 사생활, 우리는 너희들이 방과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MBC에서 방영중인 '목표달성! 토요일'의 '꿀벌탈출'과 1기 꿀벌들.

새천년 벽두부터 TV는 공개적인 사생활 엿보기 프로그램들로 시끄러웠다. 각종 오락프로그램에는 빠짐없이 '사생활 관찰'

필사(필자)

일기'와 '도전시리즈'가 고정 코너로 자리잡고, 생활정보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으로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초기엔 연예인 중심의 코너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생활'을 부각시킬 수 있는 평범한 시청자들이 관찰대상으로 초청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그 결정판으로 MBC에서는 '꿀'

탈출'로 더 유명한 '목표달성! 토요일'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목표달성! 토요일'은 현재 '유재석, 양미라의 스태프'인, '목표달성, 꿀벌탈출!(이하 꿀벌탈출)', 'GOD의 육아일기' 세코너로 진행된다. 그러나 연예인들을 폐거리로 모아놓고 남녀 짝짓기로 시간만 보내다 슬그머니 사라져버린 '스타캐피탈'과 '일요일 일요일밤에'에서 자리를 옮겨온 'GOD의 육아일기'는 목표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저 연예인들의 주가를 올려주기 위한 장치로 통원될 뿐. '꿀벌들에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꿀벌탈출'을 제외하면 '목표달성'이라는 명목하에 연예인과 일반인을 낚아채며 '사생활 엿보기'로 일관한 프로그램일 뿐이다. 그러나 꿀벌 학생들의 진솔한 모습이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목표달성! 토요일'의 대표 코너로 자리잡은 '꿀벌탈출'도 참여했던 꿀벌 학생들과 이를 지켜본 많은 또래 청소년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엿보기' 프로그램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은 여전했다. 방송 초기부터 성적 제일주의를 부추기고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방송의 오락거리로 삼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에 '2기 꿀벌탈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3주간 특집으로 방송했는데 꿀벌탈출을 목표로 하는 학생보다는 TV를 통해 자신의 끼와 재주를 자랑해 '뜨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선발함으로써 애초의 취지보다는 프로그램의 재미를 쫓는데 치중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1기에서 이미 공부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2기 역시 성적 올리기를 목표로 한 것은 학생들의 개성은 무시한 채 성적만이 유일한 평가기준이 되는 사회통념에 순응하도록 요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이처럼 의도에서 벗어난 '엿보는 재미' 중심의 기획이 계속되고, 전편의 인기에 편승한 속편제작이라는 단일한 제작태도가 반복되는 한 '목표달성! 토요일'은 상반기에 애써 다그친 시청률이라는 목표조차 끝내 '달성'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조은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부장 mabus@chollian.net

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이웃이다

퀴어영화제 ... 정체성에 대한 뜨거운 논란·차이를 긍정하는 공론의 장 기대



그는 시골 고등학교의 평범한 교사였다. 이제 얼마후면 오랫동안 사귀어온 약혼자와 결혼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자고 일어났더니 동성애자가 돼버렸다. 지금까지 쌓아온 마을 사람들과의 우정은 하루아침에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고 당장 약혼녀에게까지 매몰차게 외면당하고 말았다. 그는 정말 동성애자였나?

동성애 그 억압의 역사

자고 일어났더니 동성애자가 돼있었다? 물론 이렇게 황당한 사건은 실제상황이 아니다. 영화 '인 앤 아웃'의 일부 분일 뿐이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게 되고 금상첨화로 주변의 이해까지 얻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하지만 영화처럼 현실도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어디 현실이 그리 만만하던가. 동성애자들에게 현실은 냉혹하고 비정할 뿐이다.

동성애자들은 정신질환자라는 낙인과 극단적인 동성애 혐오(호모 포비아)라는 이중의 억압을 감수해야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취급, 격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부터였다. 과학의 이름으로 진행된 연구와 임상실험은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두려움의 존재로 인식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다.

심지어 1980년대에 이르러 동성애는 에이즈(AIDS)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사상가 미셸 푸코는 '성의 역사'라는 저서를 통해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억압 메카니즘'이라고 주장했다. 인구증가를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동성애 관계에서 성적 취향 이외의 권력이나 차별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 가든스의 의견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결국 동성애자는 다수의 이성애자와 다를바 없는 1백만명에 달하는 '이웃'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

한편 이처럼 오랜 시간을 경직된 틀 속에서 왜곡되고 금기시되던 동성애에 담론은 밀레니엄을 맞아 공론화의 장을 맞고 있는 듯하다.

다수의 굵직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임을 밝히는-커밍 아웃(coming out)-용감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받으려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동성애자 인권운동은 6, 70년대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그들은 동성애자를 비하하던 단어들을 바로 잡고 퀴어시네마를 통해 그들의 생활과 진실을 알리기 시작했다.

우리 나라는 지난 98년에 공식적인 게이 잡지가 창간되었고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제도권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 동성애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보수적인 유교질서를 향한 도전을 의미한다.

퀴어(queer), 이상한·수상한·괴상한

지난 98년 제1회 퀴어영화제가 세인들의 수군거림과 굵직한 시선속에서 개막식 당일 저지당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운동은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퀴어라고 지칭한다. 그들을 둘러싼 비난과 아우어에서

벗어나 성적소수자들-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퀴어(queer)는 더 이상 '수상한, 이상한'이 아닌 '특별한, 조금 다름'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퀴어 영화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퀴어에 대해 새롭게 정의 내리고 차이를 긍정하고자하는 노력은 열린 사회를 지향하는 밀레니엄 시대를 분수령으로 삼고자 한다. 지난 1일 아트선재센터에서 개막식을 가진 제2회 퀴어영화제는 '기쁨! 이 새로운 세기'를 영화제의 주제로 삼고 지금까지의 억압을 털고 일어나 동성애에 대한 새역사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제2회 퀴어영화제는 난해하고 폐쇄적인 그들의 영화에서 벗어나 이성애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들로 다채롭게 채워나갈 예정이다.

열린 사회는 소수를 포용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사회속에서 살아왔고 이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온건 아닌가 자문해 본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다수의 탄압은 아무 슈비츠에서의 유대인 학살, 일제의 민족말살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강자의 인권유린이다.

1백만에 달하는 소수가 오랫동안 다수에 의해 고통을 받아왔다면 이제는 '차이'를 긍정하고 그들을 감싸안은 정의가 필요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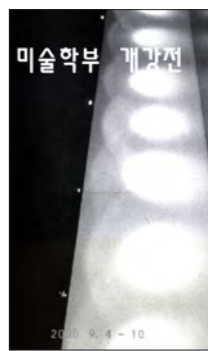
그러하여 퀴어영화제에 담은 퀴어들의 비평처럼 다가올 새 시대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게 되길 기대한다.

최은진 기자 maenads@dreamwiz.com

자유소식

학교 안에서

서울캠 미술학부 개강전



서울캠 미술학부는 여를방학 기간 동안 준비한 작품을 중심으로 개강전을 연다. 올해 세 번째 정기 전시회로 조소와 더불어 서양화, 한국화, 불교미술까지 손수미미술이 총망라된 전시회가 될 예정이다. 4학년생 제한한 50여명의 미술학부 예비 작가들이 제출한 작품인 만큼,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본교 문화관 갤러리 동국에서. 문의 2260-8752.

오장군의 발돋움

서울캠 연극영상학부는 1학년 하계 워크숍으로 '오장군의 발돋움'을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민족의 한을 웃음으로 표현한 박조영 원작으로, 전쟁 중에 유린당한 오장군의 죽음과 남은 가족의 슬픔을 그리고 있다. 학생들이 연기와 공연진행의 1인2역을 맡아 여는 공연보다 참신하고 열정적인 공연이 될 것이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4시, 7시30분. 본교 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8753.

꿈

서울캠 연극영상학부는 3학년 하계 워크숍으로 '꿈'을 공연한다. 안톤 체홉의 희극으로, 사랑의 상처를 안은 두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결국은 새로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이다. '꿈'으로 형상화된 작품 속 인물들의 성격을 눈여겨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지난 2일부터 오늘(4일)까지, 5시, 7시 (단, 마지막 날은 7시). 본교 문화관 지하 2층 스튜디오에서. 문의 2260-8753.

경주캠 미술학부 졸업전

경주캠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졸업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작품전은 '추억속으로'라는 작품을 포함해 총 26점이 전시되며 동·서양화의 독특한 만남을 선보인다. 4년간의 대학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졸업생들의 성숙된 모습이 돋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서양화전공 졸업전이 같은날(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의 (054) 770-2510.

퀴어문화축제, 성적 소수자를 향한 편견없애기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 '무지개 2000'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퀴어문화축제는 성적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들을 향한 편견과 불이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제 2회 퀴어영화제와 함께 기획되었다. 지난 1일부터 열린 서울 퀴어영화제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는 퀴어문화

축제 '무지개 2000'은 on-line과 off-line 상의 동성애자 인권모임과 동호회 등이 참여·활동하게 된다. 스스로를 이반이라고 칭하며 비주류임을 공언하는 이들은 축제기간 동안 '이반송'을 공모하며 이반 관련 영상물을 상영 하는 등 일반주류들의 잘못된 의식에 당당히 맞설 예정이다.

표은영 기자 bluerain@dgu.ac.kr

전야제 9월 8일

제 1마당 (7~8시)	개회사와 조직위원회 소개
제 2마당 (8~9시)	다채로운 볼거리 제공
제 3마당 (9~10시)	이반송 공모 심사와 발표
제 4마당 (10시~)	촛불행진

본행사 9월 9일 강의실

5시~청소년 이반을 위한 간담회 폐막행진 행사장에서 연세대 교문까지

본행사 9월 9일 (강당)

제 1마당 (3~5시)	게이와 레즈비언 보여주기
제 2마당 (5~6시)	이반 관련 영상물 상영
제 3마당 (6~7시)	묻고 답하기
제 4마당 (7~9시)	이반 친구들을 위한 잔치

메아리

태풍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풍속 32m/이상 되는 격렬한 폭풍으로 발달하면 이를 태풍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대개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 호우나 폭우를 동반한 태풍의 피해를 입는다. 우리 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북서 태평양에서 만들어진다. 연평균 28개정도 발생하는 태풍은 태어난 지 3~4일이 지나면 동심원의

구름 소용돌이가 되는데 그 다음 서쪽으로 움직여서 필리핀이나 중국 쪽으로 가다가 북상하면서 우리 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가을의 문턱에서 때이던 태풍이 불었다. 올해는 잠잠하게 지나가려나 했는데 예외없이 휩쓸고 지나간다. 해마다 이렇게 우리 나라를 스쳐가는 태풍을 보며 '남북 관계'를 생각해 본다. 지난 50여년간 잊혀질

만하면 '간첩, 북풍' 등으로 생채기를 내왔던 것. 요란하게 등장했다가 소리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태풍과 닮은꼴인 것만 같다. 정작 태풍의 눈 속에 있는 우리들은 '위험'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주변국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태풍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올해는 남북한 사이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풍이 불었다. 오해와 반복,

갈등의 골을 깊게 파던 칼바람이 아닌 이해와 화합을 동반한 미풍이 불어온 것이다. 정신없이 불어오는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의 미풍으로 잠시나마 '통일'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고 지금까지의 생채기가 조금은 아물어가는 기운마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2000년 남북관계를 휩쓸고 간 태풍은 기다림, 안타까움이라는 또 다른 상

처를 남기고 조용히 사그라들었다. 마치 사무엘 베케트의 부조리극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하는 고도처럼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올지조차 알 수가 없다. 바라건대 우리가 기다리는 고도가 허상의 희망이 아니길, 오늘의 만남과 화해가 잠깐 동안의 백일몽이 아니길 기원할 뿐이다. 최은진 문화부장 maenads@dreamwiz.com

소나기

‘납’꽃게와 수입 수산물 개방



△중국 꽃게에 왜 납덩이? 이로써 말 다하지 않았는가?

△단기적으로 좋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수산민을 죽이는 일이다.

△세계의 흐름을 거스를 순 없지만, 생각이 개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연구자격을 지니고 다니면서 꽃게에 대한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구입한다.

△꽃게가 납을 냈었다구여!

△그럼 꽃게 맛 없었다.

△말도 안되는 소리 마라.

△꽃게 납시오!

△너희가 어떤 심정 알 턱이 있나. 우리 부모가 어민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한다. 걱정하라!!

△우리 수산물도 못 믿는 판에 수입수산물 이 뭘 알이나.

△차라리 납상자에 넣지. 그러면 무게가 더 나갈텐데...

△자기들은 그걸 먹을까? 그걸 넣은 사람들에게 그 꽃게 다 먹이자

△내 머리에 ‘납’이 들어있다.

△질문: 근데 꽃게속에 납이 왜들어있대요? 꽃이 들어있어야지

△나가 다먹어 내가 살게. --;

△입은 웃도 아니고 먹는 꽃게에다 왜 납이여.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

△대단하십니까. 그 비싼 걸 게 몸 안에 넣은 당신들은...

△나 꽃게 좋아하는데...

△수입품을 먹지 맙시다.

△우리도 중국으로 핸드폰에 납을 넣어서 보내자.

△호랑남이예요? 배추흰남이예요?

△납국을 먹자!

△납 먹는거 아냐?

△그럼 우리 납 속에 꽃게를 넣어 수출하는거야.

△옛 말이 맞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

△아무리 생명이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양심에 어긋난 게 아닐까요?

△헛! 진짜예요. 내가 안 넣었어요.

TEL: 22603491·2 (054) 7702058 FAX: 22791270 (054) 7702057

하이텔 ID: dgu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문구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Table with 2 columns: Day (월, 화, 수, 목, 금) and Menu items with prices.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원인 분석·폐단 언급 필요

‘공학교육 인증제’라는 제도는 귀에 생소한데 어떤 형식을 취한 제도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객관적인 설명은 나름대로 되어 있지만 기존 대학 학습풍토와 비교하는 작업 또는 인증제도가 생겨난 원인 분석작업이 덧붙여졌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이 제도가 가져올만한 폐단에 대한 제시도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다.

추은지 (경주캠 국어국문학부2)

다양한 영화관 정보 아쉬워

10면 문화면 글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고급 영화관을 대표하는 오리 CGV11의 골드 클래스만 뿐 아니라 전문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화관을 좀 더 다양하게 소개해서 각 영화관마다의 특색을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랬다면 아마도 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약간의 정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마지막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한극장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은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들어가져 않았나 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았다.

신문숙 (서울캠 자연과학부2)

능률적인 방법으로 강의계획서 지급되도록

강의계획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해마다 개강 첫시간에 교수님들이 나눠주던 강의계획서를 지난학기부터는 학교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인적으로 출력해 사용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 사람에게야 별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PC방에 가서 시간당 돈을 내고 또 출력비를 내야만 강의계획서를 구할 수 있다.

21학점 듣는 학생이 7개 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출력하려면 대략 20분의 시간과 장당 100원씩의 출력비를 내야 한다. 여기에 부여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에 1만 2천명을 곱한다면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올 것이다. 기존의 학교 교재실에서 경지에 일괄적으로 인쇄하면 그 비용과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수백배 수천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내는 등록금에 교과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교과운영비는 이런데 쓰이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행정하는 사람들이야 강의계획서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만 하니 편하고 돈도 안들어서 좋겠지만, 정작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은 이중 삼중으로 그 수고로움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는 수혜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더 크게 보면 국가적 낭비임이 분명하다.

장신영 (사범대 역교3)

자유로운 수업선택권 제공되길 바란다

개학을 맞이했다. 그리고 방학 전 치열한 경쟁 끝에 완성한 시간표에 따라 수업에 들어가며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과 수업내용이 일치한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생각했던 것과 그 수업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만든 수강신청 정정기간. 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였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바꾸고자 하는 수업에 정원이 남아 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강신청 변경이 세과목 사제로 제한됐다는 것이다. 전자는 정원에 따른 문제이므로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후자는 학생들의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문제이다. 바꾸고자 하는 수업이 하나라면 별문제라 없지만 두 개만 되더라도 문제는 커지게 된다. 하나의 수업만 바꾸더라도 시간상의 문제로 다른 수업까지 바꾸다보면 세 번 이상의 수업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학생들의 뜻을 보

다 존중해 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기간이다. 이렇듯 제한을 두는 것은 정정기간을 둔 의미를 오히려 잃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너무 많은 수업을 변경했을 경우에 생길 혼란을 막기 위해 횟수를 제한한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수업을 선택할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이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빨리 학교를 위한 정책이 아닌 학생을 위한 기회로 바뀌기를 바란다.

남수연 (문과대1)



개강맞이... 햇살을 가려주는 상록원 앞 피라클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친구들.

방학중의 안부를 나누며 파인대소 하는 모습이 너더위를 날려 버릴 듯하다.

촬영=송광수 동문

Interview section with a photo of Hwang Seung-cheon and text discussing his experience as a student and athlete.



동약광장

현석군 군생활 잘해라. -이부니 카카 △명군 오빠. 생일 축하해 △밝고 맑은 단 한명의 소리 텨~ 유신 9월 7일 생일 마니마니 축하해 -동숙 △박해운 언니! 9월 5일 2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동생 혜성이가 열심히합시다 △평정화희, 2학기에도 열심히 해요^^ 파이팅~ -y21004 △피아드 여러분 다들 하이팅 2학기 때에는 더 열심히 해요! -김자 △2학기가 시작되었군요. 모두들 열심히 생활해나가자구요. 아자~ 빠자~ 그리고... △순주야. 일요일에 시험 잘 바라. -대기발라 주민 일동 대표 동글이 △역교과 학우들. 기운냅시다. 더위가 여러분의 젊음을 뺏진 못합니다. 스텝!! -역교 매력남

2학기 때는 만회하자. -고.감심 Fighting paksin △운영, 똘미, 윤미, 미선아!! 얼마 안 남았다. 졸업 우리 함께 열심히 해 보자구나. 파이팅! -전사(아) 지원이 △국어악과 1학년 파이팅!! -성공하면 땀겨 사줄게!! △국어국문학과 95학년 화이팅!! 알립니다 △사회복지 개강 파티 & 모임 있어요. 오랜만에 다들 회포나 품시다. -Na 그리고... △상철아! 풀죽지 말고 힘내라. △사복 은정이 누나!! 잘 지내셨어요? 잘 바꿨다면서요. 술이나 싸야 취~ △불동 2학년! 만나서 반가워~ △중양고, 중앙여고 동문회 합시다. 회장님!! 모두들 보고 싶어요. -중앙인 △전북 완주 사는 김주리(00)를 어느새 부턴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단위:원)

